

‘관리·지원’ 新 법인법 지원 조항은 어디에

조계종 총무원, 기존 법인법 폐기... 대체입법 추진

말도 탈도 많았던 법인법이 폐기되고 대체 입법된다. 이렇듯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라고 바뀐다. 하지만 규제 조항은 여전히 것으로 나타나 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 추진위원회는 6월 17일 열린 17차 회의에서 총무원이 제출한 법인법 대체입법안인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보고받았다.

총무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대해 “현 법인법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았지만 대부분 요건이 안돼 반려해야 하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인과 관련된 스님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새로 제정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많고 중회의원 선거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아 ‘법인법’을 전체적으로 수정한 대체입법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총무원이 내놓은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이전 법인법과 가장 달라진 것은 법인에 대한 정의와 분류다.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종단 사찰과 복수의 사찰이 재산을 모연해 설립한 법인 △종양종무기관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연해 설립한 법인 △종단 승려가 설립한 법인을 적용 범위에 뒀다. 다만, 종합학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 법인은 예외로 분류했다. 또한 출연주체와 형태에 따라 △종단법인 △사찰출연법인 △승려법인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 △종단 등록법인 △종단 미등록 법인 등으로 나눴다.

이렇게 법인 분류를 세분화한 것은 이전 법인법의 정의와 분류에 대

해 부정적 여론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 조항 중 하나로 꼽혔던 정관 변경 중단 승인은 법인 명칭, 임원 자격과 선출, 정관 개정 정족수,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등으로 별도의 세부 항을 만들어 이전 법인법과는 차별화를 꾀했다.

하지만 새 법인법은 총무원이 관리 일변도의 법 조항에서 탈피해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했다고 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

사실, 지원 조항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조계종 명칭 사용과 신도증 발급, 행정 지원, 종단 행사 참여 등

**법인 정의·분류는 새롭지만
 이사장 선출 당연직 지명 등
 규제 요소는 여전히 다분**

**선학원 완화책 실효성 의문
 대각회도 “수용 불가” 주장
 25일 종회 임시회에서 논의 예정**

법인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사찰 법인 등의 정관,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하는 것도 법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행정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법인 등록을 놓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재)선학원의 새 법인법 수용 여부도 문제이다.

현재 조계종이 내놓은 대체입법안에는 선학원의 경우 이사 4분의 1 이상을 총무원장의 복수 추천으로 해당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했으며 이 적용을 대체입법 시행 후 발생하는 결의 이사부터 이뤄지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선학원은 법인의 종단 등록을 전제로 한 법인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학원 관계자는 “내놓은 조항이 선학원을 위한 완화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법인법에 대한 대화는 없다”는 이전 입장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밝혔다.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대각회에도 존재한다. 독립 법인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요소가 여전히 있다는 게 이유다.

대각회 이사장 도업 스님은 “법인의 사찰 등록을 금지시키는 것 자체가 법인 권한 침해 요소”라며 “대각회는 이미 분원장 회의를 통해 반대 입장을 정리한 바 있고, 최근 법인 관리법에 대해서도 총무원에 불합리를 지적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25일 중앙종회 결과를 보고 분원장 회의 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애초 법안을 만들 때부터 각 법인들과 소통하고, 심사숙고해 입안했으면 한다”고 종단에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새로운 길벗 ‘행복바라미’ 희망합니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행복 바라미’ 캠페인이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사)날마다 좋은날(이사장 이기홍)은 6월 19~20일 광화문 일대에서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2014년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포교원장 지원 스님, 총무부장 정만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창일 의원, 장윤석 의원, 김희옥 동국대 총장 등 주요내빈은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행복바라미 단말기를 시연했다. <관련 기사 5면> 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한글 천수경 봉정... “의례 대중화 기대”

조계종 19일 조계사 대웅전서 봉정법회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표준한글 천수경 봉정식’을 6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거행했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을 비롯한 주요 사찰 스님과 포교·신도단체가 참석했다. 행사는 △봉정 고불문 낭독 △봉정사 및 법어 △한글천수경 시연 △공로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자승 스님은 법어를 통해 “한글 천수경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날

리 독송돼 불자들의 신심이 날로 견고해지는 것은 물론 나눔과 보시라는 공감과 소통이 널리 전파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봉정사에서 “그동안 주옥같은 의례문이 한문으로 독송되어 한글세대인 현대인들이 듣고 이해하며 가슴으로 동참하기 어려웠다”며 “이러한 이유로 포교원에서는 1995년 불교의례의 한글화에 매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글 천수경은 의례위원회 등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중앙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앞)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6월 19일 조계사 대웅전 부처님전에 한글 천수경을 봉정하고 있다.

회와 총무원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공포됐다. 조계종과 의례위원회(위원장 인묵)는 한글의례문 <천수경>, 한글반야심경과 칠정례를 책과 CD로 제작해 전국 사찰 및 타종단 사찰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南北불교 손잡고 만해 스님 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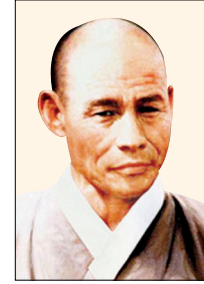
6월 29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70주기 공동 다례제

만해 한용운 스님(사진) 열반 70주기를 맞아 남북 불교도가 함께 다례제를 개최한다. 남북이 공동으로 만해 스님을 추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는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과 6월 29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합동다례제를 봉행하기로 했

다. 남측 참석 인원은 2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례제는 지난 3월 중국 심양에서 있었던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의 결과 성사될 수 있었다. 당시 민주본은 조불련에 만해스님 열반 70주기 남북공동학술토론회 봉행을 제안했고 양측은 이후 팩스로 수차례 의견을 교환해왔다. 회담에서는 이외에도



서산대사비보 존보수사업, 묘향산 보현사 추계제향 등에 관한 내용이 오갔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남북합동점등

법회는 남북관계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조불련은 만해 스님의 항일정신을 높이 사며 행사 필요성에 동의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학술토론회 형식이 아닌 공동추모 형

식의 다례제를 제안했다. 주제, 범위 등 조율해야 할 세부 문제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본 측은 방북과 관련해 현재 통일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민주본 관계자는 “이번 남북합동 다례제는 불교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스님의 정신과 사상, 업적과 실천을 남과 북이 함께 조명해보는 의미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남북불교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남북교류행사가 정례화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iinus@hyunbul.com

998호 INDEX

테마로 가는 사찰 기행 12
 호국의 달 기회 연천 광복 통일사



종합 2·3
 조계종 선거법 개정 적신회
 염불 수행 생활화 주제 포럼
 도산 광배가 버섯이 미술관에
 문장극 총리 후보에 빨간 불교계
 불교여성광장 위한 바자회

신행·복지 6·7
 세계 수행지도자 바른 집중을 말하다
 불교 구호 NGO 해외서 학교 건립

학술 문화계 8
 선학원, 만해 열반 70주년 세미나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도자기 에코컵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 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씌는 데는 무려 2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 도자기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차 마시기에도 안심맞춤!

종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 날개 5,000원 ● 2개 SET 9,000원 ● 3SET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